

'사랑은 선보를 타고', 창립 23주년 기념행사 열려

7월 1일은 우리 회사가 창립한지 23주년 되는 날이었다. 창립 23주년 기념행사는 많은 선보 임직원이 참가한 가운데 임직원들의 그간 노고를 치하·격려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대표이사 창립 23주년 기념사



사랑하는 선보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선보가족은 지난 23년간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고 우리들의 땀과 노력으로 오늘의 선보를 건설 하였습니다.

현재 선보가족은 선보공업(주), 선보유니텍(주), 선보하이텍(주)등 3개의 법인으로 본사 1, 2, 3공장, 구평공장, 영도공장, 영암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9월에 군산공장 건축공사를 시작합니다. 현재 사내 상주 종업원은 870명입니다.

부분 꿈과 희망으로 출발한 2009년도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연초에 **위기 극복을 위해 당부 드렸던 항목들이** 실천되고 있는지 재점검을 실시하여 목표에 미달되었거나 부진한 항목은 그 원인을 찾아 개선하여 목표를 기필코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첫째, 무사고 365일 달성, Event 절대 준수, 제품완성도 100%, 생산성향상 20% 공장효율 20% 증대, 최적의 Process 완성입니다.

본 항목은 조선불황에 살아남아 사업을 영위해 나가기 위한 기본인 동시에 필수 사항입니다.

▶ 무사고 365일 달성은 자신과 가족의 행복한 삶을 위해 기필코 달성해야 합니다. 작업장 내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불안정한 작업을 배제하고, 제품별 작업 표준에 의한 작업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니다.

▶ Event 준수는 관리의 기본이며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는 필수항목으로 생산성향상과 공장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사발점입니다.

▶ 최적의 Process는 업무를 체계적이고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이 흘러가듯 업무를 아주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효율을 항상 시킬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둘째, 부서별/공장별 사업목표 달성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목표를 정하고 달성을 결의한 항목입니다.

▶ 금년 상반기 매출실적은 869억으로 목표대비 86.9%로 실적이 저조합니다. 가 입고를 포함하더라도 90%를 넘지 못하여 창사 이래 목표대비 달성율은 최악으로 위험수위에 도달해 있습니다. 전 부서, 전 공장 모두 목표 미달성입니다. 작년 연말에 각부서, 각공장이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달성을 결의하였습니다. 전 부서, 각 공장은 상반기 목표미달 항목에 대해 분석하여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기필코 매출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년 생산성향상율은 5월말 기준 작년실적대비 3% 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생산성향상은 공장효율증대와 직결되는 항목인 동시에 매출 목표달성과도 직결되는 항목입니다. 생산성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공장효율증대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출목표를 달성할 수 없어 치열한 수주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생산성목표 미달성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기필코 생산성 향상 목표를 초과달성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선요구사항에 대해 협조

기념식은 선보 결의문 낭독을 시작으로 우수 사원상, 모범 사원상 시상과 함께 대표이사와 상임고문의 창립기념사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우수사원 : 48명, 모범사원 5명, 경영성과우수부서 2팀, 우수협력사 1곳, 생산성 향상 우수 협력사 3곳, 혁신 우수공장 1곳, 경영성과 우수 공장 1곳 등에게 수여되어 많은 직원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우리 회사의 23주년을 자축하였다.

특히, 이번 우리 회사 창립 23주년을 좀 더 특별한 변화가 있었다. 기념식 후 조은극장을 대관하여 '사랑은 비를 타고'라는 뮤지컬을 함께 관람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다. 이 뮤지컬은 형과 아우의 갈등을 풀어나가면서 아름다운 장면을 많이 보여주어 직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특별히 이번 공연은 23주년을 기

념하여 그 시간의 공연은 우리 회사 임직원만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 선보가족만이 오붓하게 관람할 수 있었다.

이번 창사 23주년 기념행사는 작년과 지와는 달리 전 임직원이 함께 호흡하는 문화공간의 장으로서 더욱 뜻 깊은 시간을 만들 수 있었다. 지난 23년간의 노후를 발판삼아 가족친화기업으로써 선보의 이름을 더욱 빛내고 앞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진출에도 큰 성장이 있길 기대해 본다.



하지 않는 부서는 엄중 문책과 함께 징계가 불가피하며 생산성향상에 동참하지 않는 협력사는 퇴출조치가 불가피합니다.

셋째, 도약을 위한 성장 동력 마련입니다. 우리는 STERN TUBE 특허를 획득하고 시제품이 완성되어 각 조선소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 1차 물량을 수주하였습니다. 그 외 몇 가지 기술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상품화하여 시장을 개발하고 사업다각화를 실현해야 Vision 2012의 기반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 앞서 언급 했듯이 최적의 Process를 완성하여 현재 생산하고 있는 제품은 System 흘러 보내고 부서장과 임원은 신 시장, 신 고객을 찾아내어 신제품개발에 역량을 결집시켜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선보가족 여러분!

창립 23주년을 맞이하여 **지속적인 기업경쟁력과 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고 조선 불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Vision 2012 목표달성**을 위해 몇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객이 영업을 창출하는 회사 만 들기입니다.

2000년부터 지금까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한 사항이며 각 공장마다 슬로건이 걸려 있으나 말로만 실천하고 행동으로 실천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불황을 극복하고 치열한 수주경쟁에서 승자가 될 수 있는 지름길로 모기업이 선보와 함께한 것에 대해 보람을 느끼게 해 주는 것으로 그 세부실천사항을 요약하면

▶ 약속중시입니다. 고객과의 약속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꼭 지키고 실천해야 합니다.

▶ 사용자 편의의 설계입니다. 최적의

공간 활용도, 메인트렌스 공간 확보, 최고 품질의 재품을 생산하여 고객이 선보를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 원가혁신을 이룩하여 가격경쟁력 우위를 점하여 발주자가 기분 좋은 마음으로 선보에 발주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 고객의 정당한 요구나 불만사항은 책임지고 끝까지 해결하는 고객중심의 사고로 고객을 아주 편안하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둘째, 화기작업 제로화입니다.

▶ 원색을 보호하여 수정부위 외는 재도장작업을 제로화해야 합니다.

▶ 2009년 말까지 현장 조장관 및 현장취부 물량은 100% 도면에 반영하여 도장 후 입고 물량에 대해 화기작업을 제로화해야 합니다.

셋째, 경쟁력 향상을 위한 무한경쟁입니다.

▶ 우리는 도전정신으로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 위해 무사 안일한 사고, 적당주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는 사람은 퇴출 조치가 불가피 합니다.

▶ 성과위주, 공법 개선, 신제품개발, 혁신과 가감한 도전과 변화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학력, 연공서열을 파괴하고 성과위주로 성과급지급, 승진실시 등 개인의 역량을 행사 시켜 회사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 온 무더위와 장마 등 악천후의 날씨에 건강관리에 항상 유념하시고 선보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가정에는 평화와 사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2009. 7. 1.

대표이사 최 금 식

회사 소식

수상

현대 중공업, 품질우수협력사상 수상



우리 회사는 최근 원자재 원가 상승과 환율, 유가 급등등의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도 전 직원이 고 품질의 제품을 생산 하기 위해 뚝뚝 뚫어 놓은 결과 현대 중공업으로부터 품질우수협력사의 상을 받았다.

이번 상은 우리회사의 창의적 기업이념과 적극적 경쟁력 향상으로 양질의 자재를 적기에 공급하여 모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데 따른 상이다. 이번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품생산과 품질관리에 힘써주신 직원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드립니다.

회사 소식

TV방송

KNN 방송에 우리 회사 소개돼...



지난달 8일 KNN 모닝 와이드에서 '가족경영, 기업문화 확산'이라는 타이틀로 우리 회사가 소개되었다. 경기가 어렵지만 역발상으로 가족경영을 지속하는 대표 기업으로서 우리 회사가 소개된 것이다.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회사가 직원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복지 혜택을 늘려가고 있는 모습이 집중되었다.

이번 방송에서는 아침밥을 제공하고, 매달 직원 가족과 함께 하는 가족간담회를 보여주며 적은 비용으로 작업 능률을 높이고, 어려워진 경제상황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주고 있는 모습이 방영되었다.

특히, 방송에서는 우리 회사가 감축경영이 대세인 요즘 적은 비용으로 직원가족들까지 배려하여 활력을 불

어넣고 경기불황에도 올해 매출 목표를 지난해보다 20%나 높여 잡은 것을 말하며 가족경영의 효과를 나타내었다.

우리 회사의 복지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가족 친화적 마인드를 통해 어려운 경기지만 직원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강조되어 우리 회사 이미지 메이킹에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족친화수상 후 이번과 같은 메스컴의 소개가 종종 있어와 일반인에게 우리 회사에 대한 인지도 상승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의 미래 인재지원 형성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회사 소식

인증 획득

ASME STAMP를 통한 NB 획득



지난 4월 획득한 ASME STAMP 취득과 관련하여 NB(National Board) STAMP도 획득하게 되었다.

NB STAMP는 ASEM STAMP 인증 심사의 결과물로 이를 통해 The National Board에 정식 등록 되게 되었다.

ASME의 심볼 마크가 제품에 각인됨으로써 기자재가 일정수준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되듯이 NB STAMP도 동등한 공신력을 가지지만 미국 기계학회에서 인증해준 것으로 해외에서도 인증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해외 진출 시 유리한 작용을 하게 된다.

이번 NB STAMP 획득으로 국내에 한정적이지 않고 해양 플랜트 사업 추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을 예상되며 글로벌 경영에 한껏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회사 소식

가족친화사업

가족과 함께하는 오페라 관람

우리 회사는 가족친화 사업으로 문화생활에도 직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달 3일과 6일에 걸쳐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관람권을 기혼 직원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제공하였다.

라트라비아타는 최고의 오페라 작곡가인 베르디의 작품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로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작품이다. 알렉산드르 뒤마의 아들의 소설을 오페라화한 것으로 19세기 프랑스를 배경으로 젊은 귀족과의 사랑이야기를 주제로 하고 있다.

공연 후에는 뒷 풀이를 통한 화합의 자리도 함께해 더욱 뜻 깊은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번 공연을 관람한 한 직원은 "오페라를 처음 보는 것이어서 새로웠고 좋은 공연을 보게 되어 너무 좋았다. 특히 가족이 좋아하고 가족과 함께할 수 있

는 시간이 마련 되어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가족은 "보기 어려운 공연인데 이렇게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문화생활을 지속적으로 이룰 수 있는 다양한 계획이 마련되고 있어 우리 회사의 가족친화사업이 날로 발전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최홍렬 상무의

이 한편의 책 스물일곱 이견희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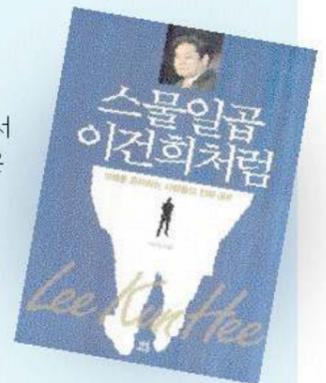
왜 하필 지금 이견희를 배워야 하는가? '검찰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 구형, '이견희 삼성그룹 회장 퇴진, '지주회사 전환해도 전자는 빼달라 법개정 요구 논란'.....

최근의 삼성 또는 이견희와 관련된 신문기사 내용들이다. 한국 최고의 그룹이라 부르던 삼성 회장에 취임한 지 20여년 만에 퇴진한 그것도 불명예스러운 퇴진 후 대주주로만 남아 있는 인물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왜 다시 거론해야 하는가? 진보적 성향의 시민단체 회원이라면 아마도 이견희 관련 책이 나온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비판할 태세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사건과 상황을 바라볼 때 중심을 가지고 냉정히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견희 전 회장 창조적 기업인 1위. 이런 설문조사 결과는 어떨까? 2008년 11월 현재 연세대 경영대학원이 경영대학 학부생과 MBA 학생 13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창조적 리더십' 관련 인식조사의 결과이다. 이 설문에서 안철수, 문국현, 유일한 등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인물은 다름 아닌 이견희 전 삼성 회장이다. 그럼 이견희 어떤가? '가장 입사하고 싶은 기업 1위 삼성전자' 2009년 1월 현재 한 온라인 취업사이트에서 1천여 명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대한민국 건국 60여 년 이래, 20여 년 만에 매출을 9배(17조원에서 150조원으로), 시가총액 기준 140배(1조원에서 140조원으로)로 성장시키며 이만한 글로벌기업으로 키워낸 인물은 이견희가 유일하다는 인식이 부정적인 사건과는 상관없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추천 여행지

다대포 낙조분수대

오색 빛깔의 향연, 온 몸으로 즐기는 다대포 낙조분수대



보고 듣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 이제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고, 어린 시절부터 너무도 길망했던 꿈의 무지개를 시원하게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바로 웅장한 규모에 화려한 조명과 어우러져 음악에 맞춰 분수가 춤추는 장관을 연출하는 세계 최고 바다음악분수인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 덕분이다. 지난달 13일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준공식을 갖고 원형지름 60m, 최대 물높이 55m, 물 분사 노즐수 1046개, 조명 511개, 소분수 24개 등 세계 최대 규모로 세계 기네스 기록에 도전하고 있다. 이로써 부산에 또 하나의 명물이 생긴 것이다.

'난~, 난 꿈이 있었죠~, 그 꿈을 믿어요~.' 가수 인순이의 노래 '구위의 꿈'과 함께 분수가 위아래로 흔들리며 춤을 추기도 하고 비제의 카르멘 중 투우사들의 행진곡이 울려 퍼지자 웅장하고 스케일이 큰 분수가 파도처럼 일렁거리고 한다.

물줄기·물방울·물보라·물안개들이 수직으로 솟아오르거나 전후좌우로 비스듬히 누워 꽃밭을 만들고, 서로 교차하거나 몸을 꼬면서 큰 나무들의 숲을 연출한다. 울긋불긋 조명이 더해 웅장한 혹은 감

미로운 음악과 어울려 짜릿한 '눈의 호사'를 선물한다. 55m의 분수가 등장할 때면 관람객들의 환호성과 함께 55m까지 올라가는 분수에 따라 사람들의 사선도 함께 올라가는 진동경이 보여 지기도 한다. 각 공연 말미에는 분수 속으로 뛰어들어 잠시 놀거나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

특히, 아이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놀이와 체험이 될 수 있어 고정 분수 시간에는 옷이 젖는 줄 모르고 뛰노는 아이들이 물 만난 고기마냥 즐거움이 가득하다.

음악분수 공연은 11월까지 매일 오후 8시, 9시 정각부터 30분간 2회 열리고 낮에는 3회도, 일, 공휴일 5회 선보인다. 매주 월요일은 정기 휴무이며 12월~다음 해 2월에는 가동이 중단된다. 음악과 조명에 맞춰 물줄기가 춤을 추는 음악분수이니만큼 미국 라스베이거스나 싱가포르 센토사 등지에서 볼 수 있었던 환상적인 음악분수공연이 이제 남부럽지 않다. 다대포 낙조 분수 홈페이지(<http://fountain.saha.go.kr/front/phtml/index.php>)에 들어가면 신청곡이나 사연도 받고 있으니 꼭 듣고 싶은 노래나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사연이 있으면 홈페이지를 꼭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부산을 대표하는 단어 하면 '다이나믹'이 떠오른다. 이제 다대포 낙조분수에서 화려하고 다이나믹한 빛줄기의 향연을 감상하시면서 무한한 희망과 감동의 시간을 맞출 수 있지 않나 생각된다. 세계 기네스에도 도전중인 '다대포 낙조 꿈의 분수대'와 함께한다면 이번 여름 무더위는 시원하게 날려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회사 소식

부서 화합을 위한 제도 소개

특명! 나의 수호천사를 찾아라.



설계에서 생산, 공급까지 우리 회사 내에는 무수히 많은 업무들이 존재한다. 이 중 가장 고질적인 문제점은 바로 부서 간 갈등이다. 이런 부서간의 갈등을 완화시킬 획기적인 아이템이 바로 '마니아' 또는 일종의 마니또와 비슷하다. 제비뽑기를 통해 자신의 마니또를 정하여 수호천사가 되어주는 것이다. 부서 간 이뤄지기 때문에 부서간의 갈등완화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한 달 안에 자신이 수호천사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들리게 되면 벌칙이 주어지 또 하나의 새로운 진동경이 회사 내에 나타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 달 동안 자신의 수호천사가 누구인지 찾아보고, 자신의 마니또에게 어떤 행동으로 기쁨을 줄 것인지 고민해야하는 행복한 즐거움과 함께 한달 후에 밝혀지는 마니또와 함께 뒷풀이를 가지면서 그동안의 에피소드를 나눴다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 회사도 반드시 '마니아'가 아니더라도 갈등이 있는 부서간의 벽을 허물고 서로의 다른 점도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회사 소식

설계부 정신강화훈련

2009 목표달성 위해 설계부 정신강화훈련

지난달 13일 우리 회사 설계부에서는 특별한 정신강화훈련이 있었다. 설계부 단합된 힘을 모으고 2009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구의 허브힐즈 내에 타잔힐즈라는 레포츠 체험장에서 정신강화훈련이 실시되었다. 허브 향기와 좋은 공기가 가득한 곳에서 훈련을 통해 정신강화훈련의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었다.

대구로 올라가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모여 고된 훈련 속에 지치기도 하였지만 돌아오는 길 2009년 목표 달성을 위한 강한 의지와 더욱 강해진 설계부의 단합심을 안고 돌아왔다.

고난이도의 코스도 많았지만 훈련도중 위험천만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지만 다행히 큰 부상 없이 모두 무사히 모든 일정을 마쳤다. 장애물을 건너고 서로 부축해주면서 얻게 된 많은 것들에 모두들 이번 정신강화 훈련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신강화 훈련에 참여한 조재민 사원은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 서로서로 못 챙겼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장애물을 힘 합쳐 통과하면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같이 땀

흘리며 체력과 정신을 단련할 수 있어서 좋았고 자신감을 상승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며 목표달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정신강화, 체력상승, 일체감 상승을 보이며 효과 만점이었던 이번 정신강화훈련을 통해 설계부의 2009년 목표달성도 만점이길 기대해 본다.

설계부 정신강화 훈련 참가자인 송현범 사원의 체험 수기를 발췌해 보았다.

"오늘 나는 나자신을 이기고 돌아왔다. 자신을 이기는 이런 마음 가짐으로 살아 간다면 인생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설계를 하면서 이 일을 끝내야 할것다는 각오로 임한다면 못 할 일도 없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다. 이번 설계부 행사도 무사히 치뤄질 수 있게 도와주셨던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운영위원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설계부 전체 팀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린다. 감사합니다!"

설계부 뿐만아니라 모든 선보기족들에게 이 극기훈련 코스를 추천해본다."



생생 현장의 소리



정봉주 직장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꿈꾸다.

직장(職長)이란 경영 조직 내 작업현장에서 직접 지휘·감독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경영 조직과 현장 사이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팀원을 이끌어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목포 공장 정봉주 직장 또한 이러한 역할을 도맡아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다. 그러한 모습이 빛을 발해 2008년 모범상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였다.

어느덧 선보와 함께한지 6년이 된 정봉주 직장은 목포공장에서 퓨리파이어 유니트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늘 최고라는 생각으로 일을 하면서 최고의 제품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는 그,

납기가 한꺼번에 많은 경우, 어려움을 겪게 될 때도 있지만 늘 잘 따라와주고 도와주는 팀원들이 있어 든든하다고 한다.

그는 "일정은 빠듯하고 물품도 많고... 힘든 상황도 있지만 우리 팀만의 공지로 납기일을 맞춰나가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했다.

특히, 늘 팀원 모두의 단결이 돋보이고 이를 통해 일을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은 단연 최고라고 말할 수 있다는 강한 자부심을 보이기도 했다. 팀원들이 지치고 힘들어 하는 모습이 보여 질 때



는 격려의 말도 빼놓지 않는다고 한다.

"처음 일 배울 때처럼 지금도 지치고 힘들겠지만 지금의 노력이 쌓이다 보면 훗날 큰 보탬이 될 것이라는 말을 하곤 한다. 하지만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팀원들의 모습에 내 자신이 자극이 되는 경우도 많다"며 배관 1팀의 능률 비결에 대해 이야기 했다.

꾸준히 같이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팀원들의 실력 향상에도 지속적으로 신경 쓰고 있다는 그의 모습에서 배관 1팀 뿐만 아니라 선보에 대한 특별한 애정도 엿볼 수 있었다.

앞으로도 팀원들과 더 합심해서 동종회사보다 월등히 좋은 제품을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가진 정봉주 직장, '더불어 잘 살자'라는 그의 좌우명이 있는 한 그의 꿈을 이룰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듯하다.

선보 칭찬 릴레이

제 38호



최병화 주임

백 마디 말보다는 한 번의 행동으로!

칭찬 릴레이 제 38호 주인공으로 선정된 소감과 주변의 반응은?

인터뷰 바로 전에 칭찬릴레이 주인공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얼떨결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네요. 남들보다 모범된 것도 없고 저보다 더 열심히 회사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아 제가 아직 그분들을 따라갈려면 멀었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이렇게 주인공이 되어도 관찮은지 모르겠어요. 당황스러운 마음이 크지만 기쁘고 감격스럽고 3공장 첫 주자로 뽑힌 것이 영광스럽게 느껴지네요. 첫 주자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의 칭찬이 부끄럽지 않도록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평소 어떤 마음가짐으로 근무하세요?

선보에서 일한지도 벌써 9년이나 되었네요. 주로 취부와 재관, 스테레이너를 담당하고 있어요. 주위에서 워낙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나가다보니 특별히 힘들었던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3공장 제품이 선보라는 브랜드 네임을 달고

납품되는 것을 볼 때면 뿌듯하고 자부심을 느끼곤 해요. 늘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과 최고라는 생각으로 일하며 최고의 품질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이사님께서 늘 사장이 될 것이란 생각을 가지고 일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가슴에 많이 와 닿았어요. 꿈을 크게 가지고 열심히 해 나가다 보면 여러모로 좋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가 전체적으로도, 회사도 불경기이지만 지금을 잘 극복해서 좋은 결과를 이룩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제 39호 칭찬릴레이의 주인공을 추천한다면?

근무하신지 16~7년 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오랜 시간동안 단 한 번도 결근하시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첫인상부터 본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요. 늘 성실하신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시는 최강욱 팀장님을 다음 주인공으로 추천합니다.

축하합니다!

본사 생일

설계	최우호(7/8) 유승균(7/15)
품질보증	백승모(7/31)
1공장 재재운영	김동섭(7/22)
1공장 계장반	김형원(7/4) 최종진(7/24)
1공장 배관반	고숙현(7/8)
1공장 순해공업	정진하(7/18)
1공장 유성산업	강병기(7/13) 배영환(7/3)
2공장 신일공업	윤한문(7/28) 윤성재(7/23)

본사 입사기념일

경영지원	서재욱(7/27)
품질경영	박용갑(7/1)
재재조달	김혜민(7/3) 손정락(7/1)
경영기획	이경숙(7/3)
기술영업	김미란(7/12)
설계1팀	송헌범(7/1)
설계2팀	정민규(7/1)
2공장 생산관리	김상훈(7/1)
고객지원	심성섭(7/2) 김현수(7/1)
기술연구소	문종현(7/8)
2공장	최홍순(7/1) 전광우(7/2)
	손환수(7/14)
3공장	최광욱(7/25)
경영기획	이주희(7/21)

구평공장 생일

생산관리	김유미(7/13)
대한ENG	추용현(7/23) 백동섭(7/28)
	하영균(7/3)
보성산업	유상준(7/13) 김영호(7/29)
	이태수(7/3)

구평공장 입사기념일

설계5팀	이순복(7/9) 윤치호(7/9)
설계6팀	나소영(7/9)

영도공장 생일

공장장	이철수(7/29)
선각생산관리	김태경(7/29)
외장생산관리	표종원(7/20) 김택현(7/10)

영도공장 입사기념일

공장장	이철수(7/1)
-----	----------



틀린그림찾기

5곳이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찾아보세요 누가 누가 잘 찾나!

